

투데이

# ‘무산김’ 양식 4년, 장흥 앞바다 풍족해졌다

## 낙지·매생이·굴 돌아와 어획량 최고 30% 급증 전남 친환경수산업 인기...인증면적 전국의 99%

양식 어민들이 김에 달라붙은 이 물질을 없애기 위한 염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연이 던져준 답은 명료했다. 지난 2008년부터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무산(無酸)김’을 생산하고 있는 장흥 앞바다에 낙지와 매생이, 굴이 되돌아 왔다. 친환경 농업이

각광을 받듯, 이제는 친환경 수산 시대가 열린 셈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장흥 인근 해역에서 낙지가 무산김 양식이 전보다 20% 가량 증가해 낙지잡이 어선들이 하루 500마리 가량 잡고 있다. 또 깨끗한 바다에서 사는 매생이와 굴 등도 10~30% 가량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이 활짝웃음을 짓고 있다.

염산은 분해되지 않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개펄 등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년 동안 전혀 염산을 사용하지 않자, 산에 민감해 죽거나 농조류, 저서생물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어획량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어린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

도 하는 잘피 군락지도 4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 주민들도 “사라졌던 갯지렁이가 나타났다”며 깨끗해진 바다 환경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전남도도 친환경 어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남 친환경 수산물 인증 면적은 5,355ha로 전국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2,371ha·김, 미역), 해남(998ha·김), 무안(964ha·김), 고흥(546ha·미역), 여수(33ha·굴, 홍합), 신안(383ha·김), 완도(30ha·꽃), 목포(1ha·김), 진도(29ha·김) 등지에서 친환경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다.

또 깨끗하게 키운 수산물은 날개 돌진 듯 팔려가고 있다. 김, 미역 등 전남도의 수산물 수출이 2월말 현재 171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나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의 77%는 일본(664만 달러)이 차지했고, 중국(71만 달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도 이인근 해양수산국장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깨끗한 바다에서 잡히거나 양식된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무 나눠드려요” ‘2012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린 28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들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감나무와 매화나무 각 500그루, 돈나무와 다정나무 각 1000그루 등 총 3000그루를 시민들에게 1인당 4그루씩 나눠줬다. /김진수기자 jeans@

### 전남 인구 1~2월세 3675명 감소

## 해남·무안·함평·고흥은 증가 ‘이체’

“화력발전소 들어서면 5000만 원 준다나 이사나 가볼까.” 대학 진학 등으로 전남지역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1~2월에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주민이 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기대심리와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다리 개통 등 인구 증가 요인이 더해졌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남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는 매달 50~110여명의 젊은이들이 대학 입학과 취업 등으로 주소를 타지역으로 옮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모이

던 인구수가 1~2월만 되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2월 현재 전남지역 총 인구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3675명이 줄어든 191만664명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무안, 함평, 해남, 고흥은 주민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남약산도시 조성 등으로 무안은 지난 1월 309명, 2월 328명 등 637명이 늘었다. 함평도 국군통합병원 종사자 이주(13명), 빛그린산단 조성 관련업체 직원 전입(22명) 등으로 두 달 만에 50명이 증가했다.

또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해남도 지난 1월 해당 지역인 화원면에 72명이 증가하고,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해남읍, 삼산면, 북일면 일대에 69명이 전입했다. 발전소 건립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에서 발전기금 1140여원을 가구당 5000만원씩 나눠 지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구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밖에 고흥도 지난해 12월 거금대교 개통으로 금산면 전출자가 줄고, 포두면에 11명이 이주하는 등 인구 유입 혜택을 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영산강 역세로 바이오에탄올 만든다

### 농촌진흥청, 1.7ha 대대위 재배단지 조성

영산강 수변에서 자라는 역세로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28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기술의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바이오에너지 원료 개발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국내 자생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서 역세가 유망하다고 보고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역세 유전자원을 1000여 점 수집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우수종을 골라 ‘거대역새1호’와 ‘우람’을 생산했다. 농진청은 대량 증식을 위한 재배 기술 개발에 성공, 영산강 수변지역

1.7ha에 거대역새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금강하구 웅안·웅포지구 184ha에도 거대역새를 키우고 있다. 낙동강(5ha)과 매향지(1.1ha) 등에도 거대역새 재배단지가 조성됐다. 농진청은 역세를 발효함으로써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업용 에너지로 활용하려면 적어도 5~6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소계 바이오에탄올은 자원 고갈 염려가 없고 식량을 축소하지 않는 장점 때문에 농진청은 에너지화 공정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농촌경제연구원 “10년 후 농업소득 감소할 것”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정책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경호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농업과 농촌은 앞으로 10년 동안 거대 경제권, 자유무역협정(FTA), 기후 변화 등 때문에 빠르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둘러싼 큰 흐름으로 세계 경제, 기후변화, 환경 위기, 과학기술 발전, 새로운 가치 지향, 고령화 사회 등을 꼽았다. 2020년 농가 인구는 현재의 70% 수준인 220만명으로 줄고 농업 총생산액은 완만하게 늘어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당 농업소득은 955만원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이나 농외소득 증가 덕에 농가소득은 4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농촌투자재계획이 종료되는 2013년 이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들은 내년 2017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부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 39년 만에 부활 ‘어업인의 날’ 내일 기념식

어업인의 날이 39년 만에 부활해 오는 30일 ‘제1회 어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1회 어업인의 날을 기리려고 오는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어업인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생명의 바다, 희망의 어촌’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어업인, 수산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기념포포선, 풍어

제 기원 등 순으로 진행된다. 어업인의 날이 4월 1일이나 올하는 일요일이어서 많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행사 일정을 30일로 앞당겼다. ‘어민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제정됐으나 1973년 ‘권농의 날’과 통합되고 1999년에는 ‘농어업인의 날(11월 11일)’로 변경됐다. 1997년부터는 ‘바다의 날(5월31일)’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 경찰 ‘기소청탁’ 전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측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 1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의원과 남편 김 판사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결과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 및 나경원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NAVER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 최강자**

음식물 처리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무료체험 해보시고 결정하세요!(3-5일)

**구입시 Check point!** 이모든게 다있다!

- 2차감량기 유무 (허수관 막힘현상발생)
- 1년 무상 A/S보장
- KC국가인증제품 유무
- 대한민국 제품확인

색거제와 동시에 20초만에 OK!

광주·전남 대리점 모집 **광주지사 652-8923**  
주부·판매사원 모집 **010-2744-8922**

**SNKLEADER** made in Korea

**전통 침·뜸·부항**  
무료 공개강좌 & 수강생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광주27기) **3월30일(금)오후 2시**  
위치: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진진 3층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사원 모집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사원 모집 **061-722-1930**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채준) **010-5311-0086**

**공무원 대 출**  
무방문·무담보·무보증·무포회기록

-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 한도 - 300~7000만원
-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월 5만원미만)
-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금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대부 제 644호)

**공무원 특별자금**  
무포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원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천만원월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대부 제 642호)